

발자국

1월, 함박눈 사이에 태어났다.
할머니는 내게 눈처럼 희고 곱게 살라하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 태어나서는
내가 걸어온 눈길은 온통 진창길이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믿고
비껴들어 오는 검은 손을 잡을 때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믿고
속삭이는 검은 말들에 수궁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믿고
검디검은 순간들에 안주할 때조차

어깨에 내리는 하얀 눈꽃송이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세상은 눈 덮인 하얀 세상이라
고개를 주억거리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눈을 즈려뺐은 무수한 발자국이 나였다

오늘도 걸어가는 청림의 눈발
걷는 걸음마다 짙은 흔적을 남기며
나만의 지도를 그려 본다

눈처럼 살고자 한 약속
너와 나의 청림의 지도를 그려가며
발자국 걸음마다 향기를 남기자